

중국 WTO 가입 및 금융·자본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과 대응

- I. 중국 WTO 가입 관련 최근 동향
- II. 중국 금융·자본시장 개방 현황과 발전전망
- III.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

I. 중국 WTO 가입 관련 최근 동향

1. 최근 동향

- 지난해 11월 15일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미국-중국간 협상 타결에 이어 캐나다, EU(5월 19일) 등 주요 국가와의 쌍무협상도 타결
- 특히 5월 24일 미국 하원이 중국에 대해 항구적 정상무역관계(PNTR) 즉, 최혜국대우를 영구적으로 부여한다는 법안을 통과
 - 법안 통과 자체는 미·중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나, 중국의 WTO가입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

〈항구적 정상무역관계(PNTR)〉

- 미국이 구소 등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, 노동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년마다 최혜국(MFN) 대우자격을 부여
- 이에 대한 면죄부형식으로 PNTR 자격을 부여받으면 항구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(현재 중국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 등 13개국이 PNTR 미부여국으로 존재)

* PNTR :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

2. 향후 일정과 주요 내용

- 현재 중국은 미국, EU와의 쌍무협상 타결로 의정서 채택, 회원국들의 가입동의 등 형식적인 절차과정만을 남은 상태
 - ▶ 올해 하반기중 최종 가입이 결정 예상
 - ▶ 관세 인하 및 시장개방에 관한 주요 내용은 거의 확정된 상태

중국의 WTO 가입 관련 관세 인하 내용

- 공산품 평균수입관세율 현행 24.6% → 9.4%(2005년)
- 컴퓨터 등 정보기술분야 수입관세율 현행 13% → 완전 철폐(2005년)
- 자동차 수입관세율 현행 80~100% → 25%(2006년)
 - 자동차부품의 경우 50% → 10%(2006년)
- 농산물 수입관세율 현행 31.5% → 14.5%(2004년)

II. 중국 금융·자본시장의 개방 현황과 발전 전망

1. 중국 금융·자본시장의 대외개방 현황

- 금융시장은 주식시장, 보험시장에 비해 일찍부터 개방
 - 개혁개방 초기부터 외국계은행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를 허용
 - 1986년에는 미국 Citi Bank 등 4개 외국계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인민폐 영업을 허가(현재 25개 외국계은행이 인민폐 영업중)
- 1990년 상해와 심천에 증권거래소 설립 이후 중국 주식시장은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의 대외개방은 제한적
 - 이미 중국의 주식거래 규모는 약 3,500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
 - 현재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주식시장 참여는 B주만 허용
 - ▶ 그러나 B주의 미약한 시장규모와 투기성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B주보다는 홍콩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 주식(일명 H주) 매매를 선호
- 보험시장은 1986년 미국 AIG, 캐나다 Manulife 등 거대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지점 개설 첫허용
 - 현재 6개의 외국계 보험회사가 영업중이며, 이미 상당한 영업 성과를 올리고 있음
 - 우리나라의 삼성생명이 상해에서 지점개설 추진중

2. WTO 가입 이후 중국 금융·자본시장의 변화 전망

- 중국 WTO가입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와 같은 무역개방 외에도 금융·자본시장의 개방을 촉진시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
- **금융분야** : 현재 25개의 외국계은행이 상하이, 선전 등 동남부 연해지역에 한해 운영 중
 - 이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고, 진입규제사항도 완화할 방침
- **자본시장** : 아직 구체적인 개방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올해 중 시장개방계획 발표 예정
 - 현재 B주식에 한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으나 A주식 투자로 확대 허용 방침 고려
 - 주식시장의 관리효율화와 안정을 위해 A주와 B주를 통합하는 한편,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유사한 차스닥 설립 검토
 - 국채에 대한 외국인 매매를 허용과 동시에 회사채 발행조건도 완화

중국 WTO 가입 관련 금융·자본시장의 대외개방 내용

금융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 확대 · 지난 3월 6개 외국계은행 추가 영업허가(19개→25개) · WTO 가입후 인민폐 영업가능지역 확대(대련, 천진 등)
자본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계 증권 및 보험회사 지분참여 허용 (2003년 최대 50%) - 외국계 보험회사의 영업지역 확대 - 외국인투자자의 국채, 위안화 주식(A주) 매매 허용 검토 (WTO 가입 직후) -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A주·B주 통합 및 제2 주식 시장인 차스닥(CHASDAK) 설립 검토(올해 중)

Ⅲ.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

1. 우리나라에의 영향

가. 무역수지 측면

- 중국의 WTO에 가입에 따른 관세, 비관세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확대는 우리에게 긍·부정적 효과 동시 발생
 - ▶ **對중국 수출**: 중국의 수입관세율 인하와 시장개방 확대로 철강, 석유화학 등 경쟁력 우위업종의 상당규모 수출 증가 예상
 - ▶ **對중국 수입** :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최혜국대우에 준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중국제품의 수입 급증 가능성 희박
 - ▶ **우리나라의 제3국 시장에서의 수출** : 중국 산업이 WTO 가입 초기부터 경쟁력을 높이는 어려워 제3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감소 효과는 다소 미미
 - ▶ **우리나라의 제3국 시장에서의 수입** : 영향 없음
- 이렇게 보면 중국의 WTO 가입후 초기 수년간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
 -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주요 국내 연구기관 모두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분석
 - 특히 KIEP는 최대 17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추산

중국 WTO 가입 이후 5년간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수지 개선효과 분석

단위 : 억 달러

	KIEP	삼성경제연구소	한국무역협회	한국은행
무역수지 개선효과	10~17	12~15	4.6	2.8

-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, 중국의 가격·비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우리 나라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 전망
- KIEP는 현재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흑자가 연간 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적자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우려

나. 금융·자본시장 측면

- 그 동안 중국은 금융·자본시장에 대해 폐쇄적·보수적 정책 견지
 - 동남아 외환위기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에의 영향 미미
 - 다만, GITIC 파산 등 일련의 금융불안은 기업개혁 부진과 실물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제기
- 금융·자본시장의 개방 확대로 위안화의 자유로운 태환과 위안화 환율변동 폭이 커지면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
 -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로 인한 환위험 헤지 차원에서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일정과 개방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망

2. 대응방안

- 중국 WTO 가입과 이에 따른 실물 및 금융·자본시장의 개방 확대는 중국경제의 세계경제권 편입 가속, 세계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
 - 현재 중국은 미국, 일본에 이은 우리나라의 3대 무역대상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큼
- 중국의 WTO 가입은 무역효과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나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

· 정부의 대응

- ▶ 우선 중국의 조정관세 인하 및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압력 강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대응 노력
- ▶ 또한 중국에 WTO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반덤핑 제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

· 기업차원의 대응

- ▶ 저임, 저가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품질혁신과 기술개발, 애프터서비스 노력
- ▶ 또한 생산비 절감 및 값싼 인건비 활용을 위한 공장이전형 제조업 일변도에서 탈피해 유통이나 광고, 판촉자문, 물류, 금융, 통신, 건설 등에 관심 필요

- 자본시장의 개방과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이와 관련한 면밀한 검토 요망

· 가장 민감한 부분은 위안화 환율 변동 여부임. WTO 가입 이후 위안화 환율변동폭을 확대(현재 $\pm 0.3\%$)할 가능성이 농후

- ▶ 적정수준의 외화확보 및 제3국 수출시장 적극 개척으로 외화자금의 안정적 조달 노력

· WTO 가입 이후 주식시장 개방확대 및 고도 성장세 지속 전망으로 이의 활용방안 강구 필요

- ▶ 현지화제고 및 현지 직접금융 조달 차원에서 주식회사 형태로의 진출 혹은 기존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고려
- ▶ 지난 3월 인민폐 영업허가를 받은 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을 통해 인민폐 운영자금 조달의 원활화 도모
- ▶ 증권회사들은 중국 주식시장에의 직접 진출로 자본이득을 꾀하는 한편, 국내 중국진출기업의 중국 증시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컨설팅 업무도 강화 노력 필요